

社說

신임 시장원 시장에게 바란다

6월 4일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시장원 시장을 선택했다.

시민들이 시장원 시장을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증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포천시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서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원 시장이 취임은 했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동요되어 있다.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시장원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장이 가진 모든 권한은 포천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은 시민중심의 정치, 시민중심의 자치, 시민중심의 행정을 시정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원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장이 가진 모든 권한은 포천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고 있다. 즉,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서 시장은 이같은 시민들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서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시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함께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원, 전 문가 그램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심 없는 노력이 있어야 시민을 위한 행정 혹은 정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원 시장은 정당과는 관련이 없는 무소속이다. 우리나라 정치풍토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은 원계가 있는 만큼 필요우 국회의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색깔은 달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향후 5년 내지 6년이 20~30년 포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포천을 위한 정치,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누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혼자 힘만으로는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만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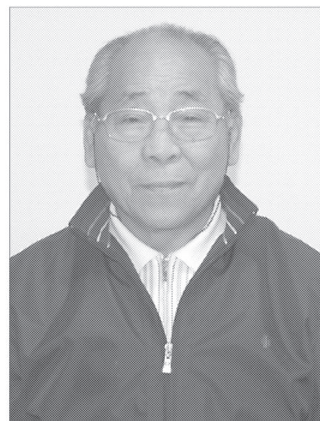
시장원 시장은 여러 차례 선거를 거쳐서 당선된 민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화과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인터뷰

포천노인대학 학장 신석산

“포천시의 예산지원으로 필요한 강좌 추가 개설해야” “시장·국회의원은 당선되기前 사람의 모습으로 일해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부설 포천노인대학(학장 신석산)은 1982년6월1일 개교하여 현재까지 26기 수료생을 배출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 학장은 44년10개월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유망, 송우, 정교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1999년8월 정년퇴임했다. 퇴임후 신 학장은 포천시노인대학원으로 4년간 봉사하다가 포천노인대학 학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노인대학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으로 후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학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포천시에 바라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어 지원액을 늘려 주기를 바란다”며 “선진지 견학에도 버스 1대만 지원되고 있어 더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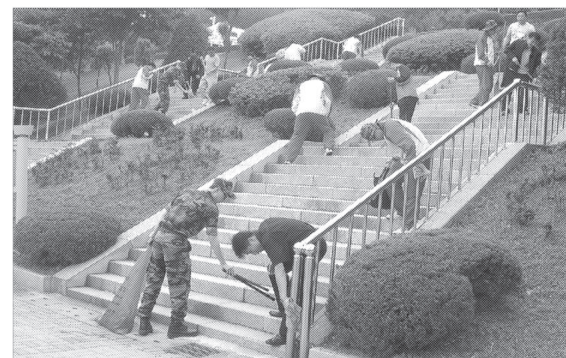
신 학장은 국내정세에 대해 관심을 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는 물론이고 서예, 음악, 포크댄스 등의 과목도 개설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신 학장은 “포천시가 흔들리지 않고 선인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정신력이 중요하며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현위에서 당선 되기전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학장은 건네준 ‘수 만 번 들어도 기본 좋은 말’(포천노인대학)은 ▶힘을 내세요▶걱정하지 마세요▶용기를 잃지 마세요▶조건없이 용서합니다▶감사합니다▶아름다워요▶사랑해요 등이 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무부대원 청성공원 자연정화 활동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영령 기리기 위해



국군 제 306기무부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청성공원에서 청성공원을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국군 제 306기무부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전 부대원들이 충훈탑이 있는 포천 청성공원에서 대대적인 자연정화 운동을 펼쳤다.

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예를 다하기 위해 청성공원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충훈탑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다.

부대는 현충일인 6월6일에는 전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훈탑 참배 행사를 가졌다.

하승만 기자 forme64@paran.com

‘법질서 따라잡기’ 동영상 시청

포천경찰서 법질서 확립 실무회의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5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무과장, 계(팀)장, 서무담당 직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포천경찰서는 법질서 확립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제작한 ‘법질서 따라잡기’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경무과장(경장 장건기) 주관으로 기능별 법질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질서 확립을 위한 112순찰차량 내비게이션 설치문제와 교통시설 예산 집행시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한편, 포천경찰서 장건기 경무과장은 “경찰이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선다는 마음 기점으로 각 기능별로 지금껏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 앞으로 더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시장원 시장님께 드립니다

지난 6·4 제3대 포천시장 보궐(補選)선거에서 당선(當選)되어, 6월5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원 시장님을 위해서 선심(善心)·전시(展示)·실적(實績) 행정은 결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후보들이 공약한 것과 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종합 분석(分析)해서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해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로서 시책 공약과 취임사에서 밝힌 시간적·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점을 감안(勘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민생문제 중요한 사업 위주(爲主)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 화합·통합과 원만(圓滿)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간의 경쟁(競爭)으로 있었던 상호 견제(牽制)와 갈등(葛藤)을 우선적으로 해소(解消)하기 위하여 관용(寬容)·화해(和藹)·위로(慰勞)로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공통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역량(力量)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무단히 중단하거나 백지화(白紙化)해서 혈세(血稅)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총유권자 122,293명 중 40,77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33.35%로 결국 총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한 셈인데 시장님은 17,158표의 득표로 투표자의 42.3% 지지를 받았고, 전체 유권자에 대하여는 14%의 지지를 일련의 숫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複合的)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동반(同伴)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자 간에 상호협력·동반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발전있는 시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의회와의 관계유지도 견제(牽制)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회 구성이 다른 당파인 의원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 유지에 회의적(懷疑的)인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선거에서 총유권자 122,293명 중 40,77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33.35%로 결국 총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한 셈인데 시장님은 17,158표의 득표로 투표자의 42.3% 지지를 받았고, 전체 유권자에 대하여는 14%의 지지를 일련의 숫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複合的)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신임 시장님의 새 시정에 앞서 몇 가지 관견(管見)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산적(山積)한

이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 유지에 회의적(懷疑的)인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시장님은 2·3대 의원으로 의원·위원장·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의정과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공익을 우선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박 동 구 영북노인대학 학장

해야 합니다.

넷째, 대다수의 지방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 시장과의 친소(親疎)관계를 내세워서 무원칙적(無原則的)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시민의 빈축( 빈축)을 사게 되고, 공무원의 사기(士氣)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학연(學緣)·지연(地緣)·혈연(血緣)을 과감해서 정실인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불공정(不公正) 인사로 국민·시민의 지탄을 받는 현실을 직시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철한 주민복리의 시정의 철학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여 하루 빨리 안정된 시정이 차분하게 추진되고, 2년 간의 재임 기간 동안 공약을 착실히 실천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신뢰(信賴)를 받아 명예롭게 퇴임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paper featuring the headline '언제나 바른뉴스!' and recruitment information for reporters.